

薛聰과 〈花王戒〉

孫 政 仁

〈목 차〉

- | | |
|---------------|----------------------|
| I. 머리말 | 3. 現實에 대한 態度 |
| II. 作品의 形成背景 | (1) 現實順應의 態度 |
| 1. 時代的·文化的 背景 | (2) 現實改造論의 態度 |
| 2. 薛聰의 生涯 | (3) 두 가지 現實態度 사이의 葛藤 |
| III. 作品의 分析 | 4. 技法과 主題 |
| 1. 創作動機 | IV. 맺음말 |
| 2. 作品의 性格 | |

I. 머리말

新羅 漢文學의 실상이나 수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경우, 強首·薛聰·崔致遠 등 육두품 문인들을 논외로 하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최치원과 그 문학에 기울여 온 연구 열의에 비해 강수나 설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은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薛聰(660년경~730년경)은 神文王代를 전후하여 활약한 신라의 석학으로, 이두를 집대성하고, 유교의 경전을 구결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문장에도 뛰어나 新羅十賢·新羅三文章의 한 사람으로 칭송되었다.

薛聰이 남긴 글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三國史記』列傳에서 설총을 다루면서 소개한 〈花王戒〉로서 『東文選』奏議類에는 〈諷王書〉로 標題되어 있다. 이 〈花王戒〉는 擬人化의 수법이 기발하고 구성이 잘 짜여져 있으며 우

화적 형상이 생동한 작품이다. 이처럼 <화왕계>는 문학적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花史>와 같은 작품의 선구적 형태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¹⁾

이 작품이 지닌 이러한 문학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이미 주목되어 온 바를 재확인하는 데 머물고 있어서 이 작품이 지닌 실상을 온전히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神文王代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및 薛聰의 생애와 관련하여 <花王戒>가 갖고 있는 특색과 의미를 현실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作家論을 염두에 두고 씌여진다. 작가론의 방법이란 특정한 방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는 작품을 작가의 생애 혹은 체험과 연관지어 연구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작가론을 말한다. 작가론의 숙제는 그가 형상화해 놓은 작품에서 그의 자취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또 그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지어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론은 그 역의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즉, 한 작품에서 읽히는 어떤 성향은 작가의 어떤 원인에 기대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작품의 특정한 면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²⁾

작가론은 전기적인 자료와 작품의 관련 분석에서 출발하되, 작가의 생애에 일어났던 어떤 중요한 일을 작품과 직접 연결시키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론은 작품론과 밀착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의 의미를 먼저 밝혀내고 그것을 작가와 관련지어 의미화해야 할 것이다.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지식산업사, 1986), p. 224.

2) 金大幸, 『詩歌 詩學 研究』(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pp. 283-284.

Ⅱ. 作品의 形成背景

1. 時代的・文化的 背景

薛聰은 文武王(661~681)・神文王(681~692)・孝昭王(692~702)・聖德王(702~737)의 4대를 걸쳐 산 인물이다. 작품의 형성배경을 살핌에 있어서, 〈화왕계〉가 신문왕대에 창작되었음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주로 신문왕대를 중심으로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三國史記』의 神文王 1~9년 간의 기록³⁾을 미루어 볼 때, 그 기간의 사회적 변화에서 우리는 신라가 唐風의 중앙집권제의 律令制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⁴⁾ 무엇보다도 전제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과감하게 귀족세력의 숙청을 단행하였으니, 上大等の 지위에 있는 자라도 왕권의 전제화에 방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처단하였다. 또 그 기간 동안 儒敎政治理念을 구현하고자 애쓴 점을 볼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처럼 神文王代에 이르면 專制王權이 확립되면서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신문왕대에 이르면, 眞骨貴族의 세력이 일반적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육두품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부각되게 된다. 육두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上大等이나 中侍는 물론이요 各部의 令(長官)에도 임명될 수 없는 제약이 따랐으나, 이들은 신분의 권위에 집착하는 진골귀족에 대항하여 왕권과 결탁하였다. 이에 따라서 육두품세력이 점점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특히 학문적 식견에 의해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⁵⁾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육두품들은 신분적 제약보다는 유교의 도덕적인 것을 앞세우고 王權에 다가갔을 것

3) 『三國史記』 卷 8.

4) 申滄植, 『統一新羅史研究』(三知院, 1990), p. 128.

5)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一潮閣, 1983), p. 93.

이며, 국왕 역시 그들의 지략과 경륜이 필요했을 것이다.

통일 이후 中代 신라가 되면서 유교가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 육두품 출신들은 유교와 불교의 양자 중에서 택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強首가 世外敎로서 불교를 배척한 것은 骨品制의 身分秩序를 배척한 것으로 해석된다. 薛聰의 경우에는 이 점이 딱 모호하게 되어 있으나, 強首와 마찬가지로 생각된다.⁶⁾

이러한 새로운 경향하에서 神文王 2년(682)에 國學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 國學의 설치에 強首와 薛聰 같은 육두품 출신에 의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육두품 자제를 가르치는 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육두품들은 낮은 신분을 학문으로써 보충하여 왕권을 보필하는 동시에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국학의 3科의 教授書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論語』·『孝經』·『禮記』·『周易』
- (나) 『論語』·『孝經』·『左傳』·『毛詩』
- (다) 『論語』·『孝經』·『尙書』·『文選』

이에 의하면 『論語』와 『孝經』은 3科의 필수과목이고, 五經과 『文選』이 선택과목으로 더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학의 학생을 상대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한 시험제도인 讀書三品科의 시험과목을 보면, 下品에서 上品으로 이르는 순서가 기본적인 것에서 광범위한 지식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교 실천 도덕의 근본인 孝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인 예의에 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유교에 의하면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를 막론하고 심지어 국왕까지도 예외없이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道德律 밑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유교가 眞骨 밑의 신분증인 육두품에 의해서 환영되고 적극 수용된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아 이치있는 일이다.⁷⁾

6)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潮閣, 1991), pp. 225-226.

7) 李基白, 같은 책, p. 228.

2. 薛聰의 生涯

薛聰은 慶州薛氏로서 字는 聰智라 하며, 그의 諡號는 고려 顯宗 때에 弘儒侯로 追贈되었다.

薛聰의 家系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元曉不羈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薛聰의 字는 聰智요, 祖父는 談捺奈麻요, 父親은 元曉인데, 元曉는 처음에 桑門이 되어 佛書에 널리 통하였다.⁸⁾

聖師 元曉는 俗姓이 薛氏이다. 祖父는 仍皮公 또는 赤大公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赤大淵 옆에 仍皮公의 사당이 있다. 父는 談捺奈麻이다.⁹⁾

그리고, 薛聰이 後系에 관해서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日本人 眞人이 新羅의 사신 薛判官에게 주는 詩序에 “일찌기 元曉居士가 지은 〈金剛三昧論〉을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을 깊이 恨하였는데, 新羅國 사신 薛이 곧 居士의 抱孫임을 듣고 비록 그 祖父를 보지 못했으나 그 孫子를 만난 것을 기뻐하여 이에 詩를 지어 준다”고 하였다 한다. 그 詩는 지금 남아 있으나, 다만 그 子孫의 名과 字는 알지 못한다.¹⁰⁾

여기서는 元曉의 손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여 薛判官이라고만 하였는데, 다른 기록에는

大曆 春에 大師의 孫 翰林 字 仲業이 滄溟에 사신으로 日本으로 (갔다)¹¹⁾

- 8) 「薛聰 字聰智 祖談捺奈麻 父元曉 初爲桑門 掩該佛書」 『三國史記』 卷 46, 列傳 薛聰條.
- 9) 「聖師 元曉 俗姓薛氏 祖仍皮公 亦云赤大公 今赤大淵側 有仍皮公廟 父談捺乃麻」 『三國遺事』 卷 4, 元曉不羈條.
- 10) 「世傳 日本國眞人贈新羅使薛判官詩序云 嘗覽元曉居士所著金剛三昧論 深恨不見其人 聞新羅國使薛 即是居士之抱孫 雖不見其祖 而喜遇其孫 乃作詩贈之 其詩至今存焉 但不知其子孫名字」 『三國史記』 卷 46 列傳 薛聰條.
- 11) 〈高仙寺 誓幢和尚碑〉 『朝鮮金石總覽 上』, p. 42.

라고 하여 그가 薛仲業임을 전해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서 薛聰 전후의 5대에 걸친 家系를 알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仍皮公——談捺乃末——元曉——薛聰——薛仲業

이러한 薛氏의 家系는 신라사회에서는 六頭品에 속하고 있었다.

薛聰은 元曉의 아들이다. 원효는 僧侶로 破戒를 하고 瑤石宮에 寡居하던 공주와 관계하여 설총을 낳았다. 그러므로 설총의 母系는 王族인 眞骨이었으나, 父系는 薛氏로서 육두품이었다. 그러고 이처럼 父系와 母系의 骨品이 다를 경우에, 설총의 골품이 父系의 낮은 쪽을 택하여 육두품이었을 것임은 당시의 家父長的 家族制度나 骨品制의 배타적 성격에 비추어서 짐작할 수 있다.¹²⁾

『三國史記』薛聰傳에서는 “설총은 천성이 名銳하고 나면서부터 道를 깨달았다. 방언으로 九經을 해독하여 後生을 訓導하였으므로, 지금까지 學者들이 宗主로 삼고 있다.”¹³⁾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설총이 유학과 문장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원효가 불교에서 이룩했던 것과 같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못했다. 나면서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도리도 천지만물의 근본 이치를 밝히고 세상을 구하는 도리일 수 없고, 문신으로 진출하면서 적절하게 처세하는데 필요한 지혜 정도의 것이었을 것이다.¹⁴⁾

그는 처음에는 중이 되었다가 還俗하여 儒學에 정진하였는데, 천성이 聰悟하여 經史에 능통하고 문장에 뛰어나 新羅十賢의 한 사람으로, 또 強首·崔致遠과 함께 新羅三文章으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어 그가 지은 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三

12) 李基白, 앞의 책, p. 224.

13) 「薛聰明銳 生知道待 以方言讀力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三國史記』卷 46. 列傳 薛聰條.

14) 조동일, 앞의 책, p. 241.

國史記』에서도 “지금도 남쪽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碑銘이 있으나 글자가 缺落되어 읽을 수가 없으니, 끝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¹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설총의 글은 〈花王戒〉 한 편만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작품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미는 한층 더하다.

설총은 당시에 지위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三國史記』에서 〈花王戒〉의 내용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神文王이 “遂擢聰以高秩”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위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학에 능통한 지식인으로서 학식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僧侶의 아들인 薛聰이 儒學者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이것은 薛聰에게 정신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교를 비판하고 儒學者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⁶⁾

薛聰은 육두품 출신의 귀족으로서 그의 학문과 경륜은 석학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골품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던 불행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육두품 출신으로서 신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종교에 투신하거나 외국으로 떠나지 않은 지식층의 인사들은 대개가 문장으로 출세하고자 했는데 설총도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다. 그들의 문장수업은 결국 德治에 근본은 둔 儒學을 닦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학문적 경륜이 문장을 짓고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데만 필요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한 데서 나아가 왕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德治를 베풀도록 하고 관료조직을 정비하여 특권층의 지나친 횡포를 억제하도록 실재적인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¹⁷⁾

이러한 성격은 그들이 專制君主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神文王이 울적함을 풀기 위해 설총에게 高談善謔을 요구하고

15) 「但今南地 或有聰所製碑銘 文字缺落不可讀 竟不知其何如也」『三國史記』卷 46, 列傳 薛聰條.

16) 李基白, 앞의 책, p. 226.

17)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產業社, 1978), p. 47.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육두품인 설총이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 신라 이후 정치 사회적 변혁으로 국왕과 육두품 귀족들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골품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던 육두품이 골품체제와 일정한 타협 아래 왕권과 결합하여 정치적 진출을 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유학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설총은 강수와 마찬가지로 貴族的이기보다 官僚的이었다.

Ⅲ. 作品의 分析

1. 創作動機

『三國史記』卷46 列傳 第6에서 설총을 다루면서 〈화왕계〉를 소개하였는데, 그 앞 부분에 창작동기를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神文大王이 仲夏月에 높고 통창한 집에 기거하였을 때에 聽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오던 비가 오는 처음으로 개고 훈훈한 바람도 좀 서늘하니 맛있는 飲食이나 애절한 音曲이 있더라도 高明한 談論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직한 마음을 푸는 것만 같지 못하겠나. 그대는 반드시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니,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¹⁸⁾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화왕계〉는 설총이 왕의 청탁을 받고 들려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신문왕이 어느 여름날 밤에 설총더러 무슨 이야기거리를 들어면서 울직한 마음을 풀고 싶다고 하자, 설총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말을 꺼낸 것이다.

이 〈화왕계〉는 고대설화로는 화자와 청자, 창작동기, 결과까지가 분명하여 고대설화의 특성 및 효용 인식면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

18) 「神文大王 以仲夏之月 處高明之室 顧謂聽曰 今日宿雨初歇 薰風微涼 雖有珍饈哀音 不如高談善議以舒伊鬱 吾子必有異聞 盍爲我陳之」

는 좋은 자료라는 지적¹⁹⁾이 있었으나, 문제의 제기에 그쳤을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화자, 청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논의를 시작하자.

청자인 신문왕이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한 것은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풀고자 허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왕이 맛있는 음식이나 애절한 음곡으로는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풀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생활이라든가, 풍류를 즐기는 생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민이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신문왕이 지닌 가치관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신문왕은 자신의 개인적 본능적 욕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정신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한 것이다. 울적한 마음을 풀다는 것은 일종의 카타르시스이다. 신문왕은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위해 고명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고 본 것이다. 이때 고명한 담론은 일종의 교훈성을,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오락성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호라쓰 Horaz는 작가의 의도를 교훈성과 오락성으로 말하여 문학의 대상을 범주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다. 이때, 교훈성은 교훈문학과 예술체험이 주는 카타르시스적 정화효과 및 문학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직설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가 하면 오락성은 예술의 향유과정에서 현실성을 멀리하는 거리감 즉 간격을 겨냥하는 개념이다.²⁰⁾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신문왕이 요구한 高談善謔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의 교훈성과 오락성, 정치적 직설성과 현실적 거리감 등 도저히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것이다.

화자인 설총은 이처럼 지극히 난해한 신문왕의 요청에 직면하여 조금의

19) 具壽榮, 「花王戒 攷」 『論文集』 第Ⅳ권 2號,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7), p. 47.

20) 허창훈, 『현대문학개론』(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p. 65.

망설임도 없이 즉석에서 寓話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 대목은 설총이 지닌 학식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우리 문학이 지녔던 일반적 수준의 한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寓話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민중들 속에서 창조 보급되어 온 구전 설화의 한 형태이다. 이 시기에 와서 우화는 구전 우화의 진보적인 사상경향과 의인화, 풍자, 해학 등의 수법들을 계승하면서 개별적인 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되기 시작하였다.²¹⁾ 〈화왕계〉는 이러한 문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기에 새롭게 출현한 창작우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겠다.

2. 作品의 性格

이제, 〈화왕계〉의 작품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두 가지 특징으로 유별되는 모든 문학작품을 說話²²⁾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화왕계〉를 설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화왕계〉는 설화의 두 가지 유형, 즉 현실에 충실한 경험적(empirical) 설화와 이상에 충실한 허구적(fictional) 설화²³⁾의 상반된 면을 아우르고 있는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실제 작품을 통해 이상의 두 가지 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경험적 설화는 사실의 진실과 사실상의 과거에 충실하는 역사적 요소와, 과거보다는 현재의 관찰에 의존하는 모방적 요소를 지닌다.²⁴⁾ 〈화왕계〉의 끝 부분에서 역사상 실재 인물인 孟軻(孟子)와 馮唐의 불우한 삶을

21)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I』(도서출판 진달래, 1988), p. 60.

22) 로버트 쇼울즈·로버트 켈록, 「說話의 傳統」, 金炳旭 編·崔翺圭 譯, 『現代 小說의 理論』(大邦出版社, 1983), p. 20.

23) 같은 논문, 같은 책, p. 28.

24) 같은 논문, 같은 책, 같은 곳.

거론한 것은 과거에 충실하고자 하는 역사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화왕계〉 전체를 통해 신문왕대의 정치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전제군주하였던 당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여 현재의 관찰에 의지하는 모방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허구적 설화는 로맨틱한 요소와 교훈적 요소를 지닌다. 허구의 작가는 “시선을 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줌으로써, 그가 즐겁게 하거나 교화하려고 하는 청중에게 고정시킨다.”²⁵⁾ 이러한 점은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창작동기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신문왕이 설총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울적함을 풀 수 있는 高談善謔이었고, 그것은 문학이 지닌 교훈성과 오락성을 함께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설총은 평소애 자신의 생각을 신문왕에게 들려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마침 왕이 원하기도 하여 〈화왕계〉를 창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왕을 즐겁게 하면서 교화시킬 수 있었으니,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요구가 문학의 오락성과 교훈성을 통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 바로 〈화왕계〉인 것이다.

허구의 교훈적 구분을 寓話(fable)이라고 할 수 있는 데,²⁶⁾ 신문왕이 〈화왕계〉를 다 듣고나서 “그대의 寓言에 깊은 의미가 있도다”(予之寓言誠有深志)라고 했듯이 〈화왕계〉는 교훈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寓話이다. 그러나 경험적 충동과 허구적 충동을 적절히 타협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설화문학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 小說이 경험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설화문학에서 재결합한 소산²⁷⁾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의인설화인 〈화왕계〉는 이러한 점에서도 후대 擬人小說의 선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5) 같은 논문, 같은 책, p. 29.

26) 같은 논문, 같은 책, 같은 곳.

27) 같은 논문, 같은 책, p. 30.

〈화왕계〉는 현전하는 우리 고전 가운데 寓言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寓言을 담고 있는 우화를 짓는 목적은 풍자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특히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인간사의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풍자하고자 한다.²⁸⁾ 〈화왕계〉는 식물을 소재로 한 것이지만, 邪佞한 자와 正直한 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왕의 아둔함을 풍자한 훌륭한 우언으로서 독창적인 것이다.

3. 現實에 대한 態度

〈화왕계〉는 교훈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寓話이다. 우화(fable)에 해당하는 소재로서의 스토리를 주제(subject)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플롯의 기법과 아울러 性格化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⁹⁾

성격화는 인물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특징은 성격 분석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인물들의 특징은 보편적(일반적) 특징, 신체적 특징, 情緒的 특징의 항목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은 그 인물이 살아가는 環境과의 상관적인 맥락 속에서 특징을 드러내며, 개인적인 특징도 다른 인물과의 대조를 통하여 분명해진다.³⁰⁾ 〈화왕계〉에는 등장인물인 상비와 백두옹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가를 극명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때 환경에 대한 반응을 현실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우화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밝혀보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태도란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때 분류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현실을 당위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순응하는 태도를 형성

28) 曹壽鶴, 『韓國의 托傳과 假傳』(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p. 171.

29) 朴東奎, 『韓國小說의 性格研究』(文學世界社, 1981), p. 34.

30) 禹漢銘, 『韓國現代小說構造研究』, (三知院, 1990), p. 389.

하는 방향과, 현실을 상황으로 보아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개조론적 태도의 방향³¹⁾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순응하는 태도는 薔薇를 통해서, 개조론적 태도는 白頭翁을 통해서 나타난다.

(1) 現實順應의 態度

먼저, 薔薇의 경우를 보자. 薔薇는 花王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침은 백설같은 모래강변을 밟고 기울같이 맑은 바다면을 대하여,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쏘며 유유히 사는 자로 이름을 장미라 합니다.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듣고 향기로운 침소에서 모실까 하여 왔습니다. 왕께서는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³²⁾

인용문 중에서 薔薇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어휘는 ‘自適’이다. ‘悠悠自適’이란 말이 있듯이, 장미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 온 것이다. ‘雪白之沙汀’과 ‘鏡清之海面’을 포괄적으로 ‘江湖’로 파악할 수 있다면, 강호에서의 장미의 삶은 극히 평온하고 흠족한 삶이다. 장미는 주어진 자연의 질서 속에 안주하여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 그가 말하는 강호는 세계와 자신이 합일된 조화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장미에게는 아무런 번민이나 절박한 문제가 없다. 세계와 자아의 의지는 아무런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만으로는 현실에 대한 薔薇의 태도를 온전히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듣고 향기로운 침소에서 모시고자”하는 것의 의미이다. 속세를 벗어나 마음대로 한가히 세월을 보내던 장미가 임금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현실 내지 정치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江湖自然에서의 삶을 부정해서가 아니다. 장

31) 김내행, 『시조 유형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 240.

32) 「妾履雪白之沙汀 對鏡清之海面 而沐春雨以去垢 快清風而自適 其名曰薔薇 聞王之令德 期薦枕香帷 王其容我乎」

미에게 있어서 강호자연은 정치현실의 세계와 단절되었거나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 있지 않으며, 더우기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관계를 이루지 않는다.³³⁾ 장미는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정치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임금의 令德을 들었다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강호자연에 있으면서도 정치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미가 임금의 令德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세속적 현실에서의 삶도 긍정·찬양한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미는 강호에서의 삶과 현실에서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지닌 薔薇가 강호에서 나와 정치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지닌 가치관에 연유한다. 자신의 가치판단을 통하여 가치가 인정된 대상에 대한 지향을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장미가 무엇을 가치있는 것으로 보았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와 그 가치를 어떻게 추구했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를 논의해 보자.

薔薇는 윤리적 덕목의 하나인 忠을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임금의 令德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념적인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온당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장미는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거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의 이념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에 더 집착하고 있다. 장미는 강호자연에서의 평온한 삶과 임금의 令德에 의한 태평성대의 삶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삶보다는 임금을 향기로운 침소에서 모실 수 있는 향락의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금을 침소에서 모실 수 있으려면 임금의 총애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니,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

33) 이 점은 孟思誠의 〈江湖四時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金興圭, 「江湖自然과 정치현실」, 李相信 編, 『文學과 歷史』(民音社, 1982), p. 114.

도는 유교적 덕목을 내세운 고전적이고 모범적인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현실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유유자적한 가운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현실적 삶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장미는 바로 眞骨貴族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귀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統一을 전후하여 일반 民衆의 생활은 점점 가난으로 기울어 갔다. 빛을 갇지 못하여 奴婢가 되는 예가 늘어갔다. 社會階層의 분열이 점차로 커져 간 것이다. 특히 貴族의 근거지인 首都 金城(慶州)에는 많은 奴婢가 있었다. 王室에는 衣食住를 비롯하여 여러 手工藝品을 제조하는 각종 官署가 있어서 奴婢의 신분을 가진 많은 手工業者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또 宰相家에는 奴婢가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貴族들이 상당한 奴婢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³⁴⁾

귀족들은 그러한 물질적 풍요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향기로운 침소에서 임금을 모시고자 할 정도로 왕권과 가까이 하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專制王權이 강화되어 가는 속에서 그들의 특권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감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심리의 발로에 다른 아닌 것이다.

神文王 元年 8월 8일에 蘇判 金欽突, 波珍滄 興元 大阿滄 眞功 등이 謀叛하다가 伏誅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金欽突은 고구려 정벌에 큰 공을 세운 당대의 名將이며 신문왕의 장인이었다. 또한 金軍官은 兵部令 · 上大等으로 당시의 최고 실권자였다. 그러나 왕권의 전제화를 위해서는 직위나 귀족세력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왕의 장인이나 상대등의 직위에 있는 자라도 왕의 전제화에 방해요소가 될 때에는 가차 없이 제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적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連坐制를 이용하기에 이르렀으니 귀족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왕에게 아첨하는 장미와 같은 무리

34) 李基白, 『韓國史新論』改正版(一潮閣, 1983), p. 98.

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다. 설총은 이런 장미의 태도를 통해서 진골귀족들의 꿈이 얼마나 알팍한 것인가를 신문왕에게 알리고자 했을 것이다.

(2) 現實改造論의 態度

이번에는 白頭翁의 경우를 살펴 보자. 백두옹은 花王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서울 밖 큰 길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너른 野景을 굽어 보고, 위로는 드높은 山色을 대하고 있는데 이름을 白頭翁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컨대 좌우의 궁궐이 비록 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茶와 술로써 정신을 맑게 한다 하더라도 상자에 저장한 것 중에서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도와주고 나쁜 돌로써는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주와 삼베가 있더라도 왕궁이나 떠돌도 버리지 않으므로 모든 君子가 부족함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혹 왕께서도 뜻이 있으십니까?³⁵⁾

인용문 중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白頭翁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의식에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의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파악은 결국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³⁶⁾

백두옹이 소속된 공간 즉, 자신의 위치와 그 밖의 공간에 대한 의식을 보면, ‘서울 밖’에 살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안과 밖의 공간 의식이, 그리고 ‘아래로는 너른 야경을 굽어 보고, 위로는 드높은 산색을 대하고 있다’는 데서는 위와 아래 등의 공간의식이 나타나 있다.

문면을 살펴 보면, 백두옹은 자신이 속한 ‘서울 밖’의 공간을 긍정적인 곳으로 의식하고 상대적으로 ‘서울 안’의 공간을 부정적인 곳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체로 정신적 갈등에서 출발

35) 「僕在京城之外 居大道之旁 下臨蒼茫之野景 上倚嵯峨之山色 其名曰白頭翁 竊謂左右供給雖足 膏粱以充腸 茶酒以清神 巾衍儲藏 須有良藥以補氣 惡石以蠲毒 故曰 雖有絲麻 無棄管削 凡百君子 無不代展 不識王亦有意乎」

36) 김대행, 앞의 책, p. 201.

하며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서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백두옹이 ‘서울 안’의 세계와 일으킨 갈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갈등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당위나 그렇게 되어야 할 현실이 실재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외적 자극에 의해서 내면 세계의 지적·감정적 평형이 깨질 때 나타난다.³⁷⁾

백두옹은 ‘서울 안’에 사는 사람 즉, 王京人의 삶을 물질적인 풍요가 지나쳐 일종의 퇴폐·향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속에서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당위인 이념적인 가치는 무시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현실적 삶의 가치만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재등용의 방법은 공정성을 잃고 지극히 폐쇄적이어서 ‘명주와 삼베’로 상징되는 聖骨·眞骨의 귀족계급만이 등용되고, ‘왕골이나 띠풀’로 상징되는 六頭品の 인재는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王京人의 삶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닌 백두옹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안’의 혼탁한 삶에 대비하여 ‘野景이나 山色’으로 상징되는 靑山에서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삶의 공간인 靑山 속에서의 삶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고결한 삶인 것이다. 서울 밖 한 길가에 산다고 하면서 위와 아래 등의 공간의식을 통해 자연의 경치를 말하는 데서 순수하고 고결한 삶에 관한 은근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백두옹이 ‘서울 밖’에 살고 있다고 하는 데서 안과 밖의 공간의식이 나타나 있다고 했다. 이때 공간은 안과 밖으로 하여 완전히 분절되어 있으면서 전혀 대립적인 공간이다. 세상과 격리된 듯한 공간인 靑山에 살고 있던 백두옹이 ‘서울 안’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정적 공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靑山에 살되 큰 길가에 접해 있는 특수한 공간에

37) 같은 책, p. 272.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화왕계>에서 설정된 백두옹이 처한 공간은 작품을 이해한 데 상당히 본질적인 것이다.

時調의 경우에 안에서 밖을 향하는 통로로 창을 형상화하고 있듯이,³⁸⁾ 이 작품에서 ‘큰 길’ 즉, 길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통로로 형상화되고 있다. 청산이 세상과 차단되고 격리된 곳으로 인식되기 싶지만, 길을 통해서 안과 밖이 교섭할 수 있음으로 해서 백두옹이 처한 청산은 폐쇄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단된 공간에 사는 백두옹이지만 현실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큰 길가에 접해 있음으로 해서 薔薇와 같은 존재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자 달려가는 모순된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길’의 상징성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통로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백두옹이 모순된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 서울을 향해 결연히 걸어가야 한다는 의무의 길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서울로 향해 나아감은 장미가 江湖自然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지리적 이동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장미의 경우는 강호에서의 삶과 현실에서의 삶을 함께 긍정하는 현실 순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어디에 있든 그 의미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백두옹의 경우는 현실을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개조론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리적 이동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곳은 의지의 좌절과 실현이 다 가능할 공간이다. 백두옹은 화왕에게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도와주고 나쁜 돌로써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直言한다. 백두옹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가 임금에게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난 셈이다.

길은 본래 시간과 공간의 두 개념을 포괄한다. 이러한 時空間素로서의 길은 특히 소설의 의미가 생성되는 장소 역할을 하며 동시에 역사·사회적 의미를 띠게 된다.³⁹⁾ 그러므로 길의 상징성을 ‘안과 밖의 통로’와 ‘현실개

38) 같은 책, p. 214.

39) 禹漢鎔, 앞의 책, p. 498.

조의 의무'라는 두 가지로 보고, 그 길이 가지는 역사·사회적 의미를 작가인 설총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자.

六頭品인 설총의 입장에서 보면, 眞骨들이 17관등 중 제 5위인 大阿湊부터 제 1위인 伊伐湊(角干)에까지 오를 수 있음에 비해 자신들은 제 6위인 阿湊에까지밖에 오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안(內)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두품 이하의 하층 신분은 아니며, 奈麻가 될 수 없는 四頭品이나 大奈麻까지 밖에 오르지 못하는 五頭品과는 달리 阿湊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안(內)의 사람은 아니되 안(內)과 완전히 차단된 밖(外)의 사람도 아닌 것이다. 밖에 있되 안의 문제에 늘 관심하는 통로는 어느 정도 마련된 신분인 것이다. 그러한 신분에 있기에 골품제도에 의한 인재등용의 방법이 공정성을 잃고 지극히 폐쇄적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명주와 삼베'로 상징되는 성골·진골의 귀족계급만이 우대되고, '왕골이나 띠풀'로 상징되는 육두품의 인재는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위화감을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京城 밖에 산다는 白頭翁을 우대할 것을 國王에게 권할 때, 薛聰의 머리 속에는 王京人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⁴⁰⁾는 지적은 새겨 볼만하다. 王京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 위에 지배적 위치에 있었으며, 골품제도는 필경 이를 合法化하기 위한 王京 지배자 공동체의 배타적인 신분제도였을 뿐이다.⁴¹⁾ 그들은 학문적 식견을 토대로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시하며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다.

(3) 두 가지 現實 態度 사이의 葛藤

〈花王戒〉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花王이며, 薔薇와 白頭翁은 보조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1단계 始初-제2단계 展開 및 紛糾-제3단계 絶頂⁴²⁾으로 보기도 하고, 始發-進行-結末⁴³⁾으로

40)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91), p. 226.

41)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1』 古代篇(一潮閣, 1982), p. 311.

42) 權友荇, 「〈花王戒〉小考」 『崔正錫博士回甲記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4) p. 15.

43) 具壽榮, 앞의 논문, p. 49.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작품의 話者는 제2단계에서 장미와 백두옹을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비하고 있는 바, 만일 대비적 구성이 아니고 평면적 구성에 그쳤다면 주제전달의 효과는 반감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실제 작품 구성의 주축이 되는 것은 장미와 백두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호 자기과시는 어디까지나 화왕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태도 표명에 대한 화왕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현실에 대한 화왕의 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작품의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어떤이가 “둘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렵니까?”라고 말하니, 花王은 “丈夫의 말에도 도리가 있지만 佳人도 얻기 어려우니 장차 어찌할꼬.”라고 하였답니다. 이에 장부가 나아가서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도리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사오니 이제 뵈오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된자는 간사하고 야심하는 자를 좋아하고, 곧고 올바른 자를 싫어하지 않는 이가 드물니다. 이로 말미암아 孟子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馮唐은 郎官으로 파묻혀 늙었습니다. 예로부터 이와 같았으니 전들 어찌 하겠습니까?”하였더니, 花王은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라고 하였답니다.⁴⁴⁾

현실 순응적 태도를 지닌 장미는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하여 임금을 향기로운 침소에서 모시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현실 개조론적 태도를 지닌 백두옹은 유교적 이념적 가치에 충실하여 자신을 등용해 줄 것을 청하였다. 兩者를 두고 화왕은 선택문제로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은 바로 화왕의 갈등이다. 兩者에 의한 외적 자극으로 인해 화왕은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도덕적인 王道의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여인과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놓치기 아깝다는 모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외적인 당위와 내

44) 「或曰 二者之來 何取何捨 花王曰 丈夫之言 亦有道理 而佳人難得 將如之何 丈夫進而言曰 吾謂王聰明識理義 故來焉耳 今則非也 凡爲君者 鮮不親近邪佞 踈遠正直 是以孟軻不遇以終身 馮唐郎潛而皓首 自古如此 吾其奈何」

적인 욕망이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작품에서 어떤 인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느냐, 또 어디에 갈등이 나타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규명은 바로 작품 주제의 규명과 직결된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은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화왕이라는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등장 인물들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게 된 화왕의 내적인 갈등의 성격과 그 갈등 해소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화왕은 “장부의 말에도 도리가 있지만 佳人也 얻기 어려우니 장차 어찌할꼬.”라고 했다. 서술 순서에 따른 의미를 보면, 아무래도 佳人을 놓치기 싫은 아쉬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으로서 王道의 정치를 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제일의 순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탐닉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에만 연연하는 임금, 거기에다가 “장차 어찌할꼬” 하며 고민하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임금. 우리는 여기서 화왕에 대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된다. 話者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화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왕을 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화자가 작중인물의 성격을 직접 해설해주는 직접적 제시가 아닌 독자가 인물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제시의 방식⁴⁵⁾을 택하고 있다. 독자는 화왕이 생각하고 말하는 바를 통해 그의 성격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로 갈등하는 화왕에게 백두옹은 왕이 총명하여 도리를 알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함에 실망했다고 했다. 이 점에서는 백두옹의 갈등을 읽을 수 있다. 왕이 총명하여 자기를 등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실망이 가져다 준 갈등이다. 화왕이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백두옹은 그 갈등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邪佞한 자를 가까이 하고 正直한 자를 멀리하는 임금의 일반적 속성을 말하고 孟子와 馮唐의 일을 예로 들면서 “예로부터 이러하니 전들 어찌하

45)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文學과 知性社, 1990), pp. 184-185.

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이므로 체념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체념일 뿐 완전한 체념이나 포기는 아니다. “전들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말했지만, 백두옹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 寓言을 통해 왕을 회화화하고 왕의 인재등용의 모순을 환기시킴으로써 왕의 의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전들 어찌하겠습니까?”가 가지는 문맥적 실상은 체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보다 은밀하고 세련된 수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백두옹의 자세를 두고, 임금된 자가 인재를 알아 보지 못함을 원망하면서 화왕을 설득 내지 우격다짐으로 몰아 부친다.⁴⁶⁾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백두옹은 화왕의 태도에 실망을 했으며 원망하거나 비굴함이 없이 당당한 가운데 보다 세련된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화왕은 백두옹의 이러한 뜻을 재빨리 깨닫고 의식을 전환시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반복하여 말한다. 화왕이 “吾過矣 吾過矣”라고 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자기의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청산하고 심기일전한 회개로의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화왕은 이러한 회개로의 변형을 통해 ‘새로 태어난 화왕’인 것이다.

이 대목은 정직한 신하의 直諫하는 모습을 신문왕에게 알림으로써 신문왕으로 하여금 직간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아량있는 임금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설총은 직간하는 백두옹을 통해 直諫臣의 모습을, 신하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화왕을 통해 이상적인 君主型을 제시함으로써 신라사회에서 새로운 德治主義를 구현할 것을 신문왕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花王戒〉에 이어서 실려 있는 다음의 기록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46) 權友荇, 앞의 논문, p. 27.

47) 같은 논문, p. 33.

이에 王(神文王)이 顏色을 바르게 하여 이르기를 “그대의 寓言에 정말 깊은 뜻이 있도다. 글로 써서 王者의 戒鑑을 삼게 하기 바라노라”하고, 聰을 발탁하여 높은 관직에 임명하였다.⁴⁸⁾

이러한 사실은 神文王이 薛聰에게 자신의 번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高談善諱를 요구하였는 바, 그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얻게 된 신문왕은 크게 기뻐하며 설총을 발탁하여 등용한 것이다. 신문왕은 설총을 만남으로써 삶의 태도를 개혁하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이다.

4. 技法과 主題

이제 끝으로 이 작품의 技法과 主題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王道의 편벽이 있을 경우, 上疏文에서는 一身을 돌보지 않고 절실하고 지극한 내용으로 直言을 토로해야 한다. 즉, 直諫의 強硬性이 들어 있어야 한다.⁴⁹⁾ 그리하여 독자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 정치목적에 저항없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 메시지의 목적이다. 그러나 전제군주 하에서는 직언하기도 어렵거니와 직언을 한다 하더라도 군왕의 의식을 올바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寓言의 방법이 사용된다.

詩人은 反逆을 衝動함이 없이 統治者가 그의 所行을 修正하도록 움직이게 하려는 希望 속에서 백성들의 桎梏에서 統治者가 注意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詩人은 公開的으로 攻擊하기보다는 諷諭와 寓言을 使用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諷諭이라고 한다.⁵⁰⁾

寓言은 자기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빙의 度を 높이고, 또 무형의 관념이나 상상을 유형화하여 사람의

48) 「於是王愁然作色曰 子之寓言誠有深志 請書之以謂王者之戒 遂擢聰以高秩」

49) 劉勰 著 · 崔信浩 譯註, 『文心雕龍』(玄岩社, 1975), pp. 97-100.

50) 劉若遇 著 · 李章佑 譯, 『中國詩學』(汎學圖書, 1976), p. 94.

五官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는 화법을 말한다.⁵¹⁾

이러한 우언을 짓는 목적은 풍자적 효과를 노린 것인데 특히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인간사의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⁵²⁾ <화왕계>의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언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왕의 論著에서 <화왕계>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 具壽榮: <화왕계>는 꽃을 가지고 擬人化하여 왕을 諷諭한 것으로 主題는 治者의 處身할 바 戒訓 卽 貪色을 경계하고 忠諫에 귀를 기울이는 賢君이 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作品이다.⁵³⁾

② 楊光錫: 作者는 白頭翁을 통하여 忠直한 臣下를 가까이 하고, 賢明한 人才를 登用하여 王道를 確立할 것을 寓意에 의하여 諷刺의이며 暗示의으로 奏請한다. …… 곧 王道의 確立이 이 글의 主題이며, 동시에 作者의 主張으로 白頭翁은 作者自身인 것이다.⁵⁴⁾

③ 權友荇: <화왕계>는 諷刺의 立場에서 寓言의 方法을 취한 文學形態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러므로 <화왕계>도 諷刺文學의 맥락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 <화왕계>는 神文王代의 新羅 政治社會의 단면을 寓言의 方法으로 諷刺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⁵⁵⁾

④ 金光淳: 牡丹꽃을 왕에, 白頭翁을 충신에, 薔薇를 美人에 비유하여, 王者(牡丹)는 忠臣(白頭翁)의 말은 듣기 어렵고, 미인(薔薇, 奸臣)의 말은 듣기 쉽다는 이야기로서, 帝王들의 마음이 짐을 은연중에 諷刺한 것으로, 당시 君王의 人事에 많은 戒가 된듯하다.⁵⁶⁾

살펴 본대로 기왕의 논자들은 이 작품이 寓言이 方法을 사용한 諷刺性을

51) 曹壽鶴, 앞의 책, p. 169.

52) 같은 책, 같은 곳.

53) 具壽榮, 앞의 논문, p. 49.

54) 梁光錫, 『薛聰과 <花王戒>』 『語文論集』 第23輯(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p. 262.

55) 權友荇, 앞의 논문, p. 4, p. 21.

56) 金光淳, 『韓國擬人小說研究』(새문社, 1987), p. 93.

지닌 작품이라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풍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견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寓話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우화에서는 작자의 意中人物을 성격이 뚜렷한 사물에다 의탁하여, 독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인간상을 제시하되,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동물을 대립적으로 대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화류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어디까지나 元觀念에 대한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작자가 의도하는 어떤 유형의 인간상이 된다.⁵⁷⁾ 〈화왕계〉는 식물을 소재로 하였지만, 우화의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薔薇·白頭翁·牡丹은 각각 어떤 유형의 인간상을 가리키는가? 앞에서 장미와 백두옹이 화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대립적임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두 인물의 육체적 외모와 동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대립적으로 묘사하여 전형적인 인물로 성격화하고 있다.

〈薔薇〉

- 佳人
- 붉은 얼굴에 옥같은 이를 가짐
- 곱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음
- 아장걸음으로 얌전히 앞으로 나옴

〈白頭翁〉

- 丈夫
- 흰 머리
- 베틀에 가죽띠를 맴
-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와 허리를 구불임

현실에 대한 태도와 육체적인 외모 및 동작 등에 유의할 경우, 화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장미의 원관념인 주체는 巧言令色의 성실치 못한 모습으로 개인적인 욕구에만 집착하여 지극히 현실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간상이며, 백두옹의 원관념인 주체는 剛毅木訥의 質直한 모습으로 한미하지만 고결한 품성을 지녀 이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奸臣의 인간상이요, 忠臣의

57) 曹壽鶴, 앞의 책, pp. 171-172.

인간상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본질적 갈등은 장미와 백두옹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 등장인물들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게 된 화왕의 내적 갈등이다. 화왕은 善惡이 너무나 분명한 두 인물을 두고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제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와 곧고 정직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둔한 임금이 공리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욕망에만 집착하는 것을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자는 곧 정치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망보다는 도덕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작가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寓言의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대로 神文王이 薛聰에게 요청한 高明한 談論과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교훈성과 오락성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화자인 설총의 의지와 청자인 신문왕의 요구가 잘 맞아 떨어져 擬人化 수법을 적절히 구사한 <花王戒>가 나온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薛聰에 대한 작가론적 입장에서 씌여졌다. 그러기 위해 작가론에 대한 기왕의 방법론을 반성하면서, 작가의 전기적 체험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먼저 작품의 형성배경을 살피되 전기적 자료와 작품을 기계적으로 관련시키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작품의 의미를 먼저 밝혀내고 그것을 작가와 관련지어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왕대에 이르면 전제왕권이 확립되면서 진골귀족의 세력이 약화된다. 육두품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유교의 도덕적인 것을 앞세우고 왕권에 다가갔다. 육두품 출신으로서 골품제도가 가지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었던 설총은 그의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관료적 인물이다.

(2) 신문왕은 물질적·개인적 욕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번민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로서 高談善謔을 설총에게 청하였다. 이때 고명한 담론은 일종의 교훈성을,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오락성을 말한 것이다. 설총은 이처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구에 직면하여 〈화왕계〉라는 우화로서 신문왕의 요구에 훌륭히 값한 것이다.

(3) 〈화왕계〉는 설화의 두 가지 유형, 즉 현실에 충실한 경험적 설화와 이상에 충실한 허구적 설화의 상반된 면을 아우르고 있는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경험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한 설화문학으로서 후대 擬人小說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총의 의도와 신문왕의 요구가 문학의 오락성과 교훈성을 통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화왕계〉에서는 교훈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풍자적 효과를 위해 짓는 寓話의 창작의도와도 부합된다.

(4) 우화인 〈화왕계〉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인물의 성격화의 방법, 특히 인물들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밝혀 보았다.

現實順應의 態度: 장미는 강호에서의 삶과 함께 세속적인 현실에서의 삶도 함께 긍정·찬양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현실순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총은 이러한 장미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현실적 삶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진골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진골귀족들의 특권이 약화되어 가는 데 따른 그들의 알박한 심리를 비판하고 있다.

現實改造論의 態度: 백두옹은 王京人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길’은 ‘안과 밖의 통로’와 ‘현실개조의 의무’라는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설총은 골품제도에 의한 인재등용의 폐쇄성을 절감

하고,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개조하고자 하는 한편, 이념적 가치에 입각한 덕치주의의 실현을 갈망하고 있다.

두 가지 現實 사이의 葛藤: 이 작품에 나타난 주된 갈등은 화왕이라는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다. 설총은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화왕을 회화화하는 한편, 왕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보다 은밀하고 세련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왕은 회개로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화왕이 된다. 설총은 충신의 직간을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군주형을 제시함으로써 신문왕에게 德治主義를 구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5) 寓言은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인간사의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풍자하기 위해 지어지는 것이다. 〈화왕계〉는 장마·백두옹·화왕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을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우언으로서의 풍자적 효과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화왕의 내적 갈등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밝힐 수 있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와 곧고 정직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둔한 임금의 개인적 욕망에만 집착하는 것을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